

박경리 문학의 여성인물 원형 연구 - 초기 단편소설* 을 중심으로

장미영**

1. 서론
2. 가부장적 연애에 좌절한 '신경질적 첩벽녀'
3. 헌신적 모성이 아닌 각성한 '의지적 모가장(母家長)'
4.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주체적 열정녀'
5.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박경리 문학의 여성인물 원형을 탐색하고, 각 원형에 드러난 여성 인물의 성격과 자질을 분석하여, 사회적 함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원형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결벽한 자아를 가진 미혼여성과

* 박경리 문학 연구는 시기별로 크게 문단 데뷔 이후 『표류도』 발표 이전과 1960년대 이후 중·장편 중심 발표 시기, 『토지』 발표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는 초기 자전적 소설에서 『표류도』 이후 공적 세계로 작가의 시선이 옮겨 가고 있다는 평가를 근거로 한 것이다. 중기는 『토지』를 발표하기 이전 1960·70년대 초반까지로 중·장편소설이 주를 이루었고, 이 시기에도 2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1994년 8월 30일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물의 원형적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1950년대 발표한 작품에 한정하여 논의하겠다. 박경리는 1960년 1월 『현대문학』에 「나의 문학수업」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초기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 4·19는 작가의 문학적 전환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연구교수.

둘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가장, 셋째,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에 집중하는 정열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인물이 보이는 자질과 행동은 개인적인 특질인 동시에 전후 사회의 심리·물리적 생활공간에서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여성인물이 겪는 갈등과 성장은 당대의 시대의식은 물론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이중적 성구범의 단면을 보여준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도 주체로서 살아남아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인물은 작가의 페르소나의 분화이자 총합이다. 이들 인물을 통해 작가는 개인에 대한 통찰 그중 여성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타자화 된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면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박경리 초기단편소설 속 여성인물의 원형은 여성이 처한 생활공간의 변화와 여성의 주체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경리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원형질로서 여성인물의 성격과 자질을 공유하며 진화한다. 이들 여성인물의 원형은 박경리 문학 전체에 걸쳐 시대와 상호작용하며 수정되고 강화되어 『토지』에 이르러 윤씨부인, 최서희, 별당아씨, 봉순, 월선, 임이네 등과 같은 입체적인 인물형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주제어: 공감, 장 이론, 생활공간, 여성인물 원형, 철벽녀, 모가장(母家長), 열정녀)

1. 서론

박경리¹⁾는 1955년 8월 『현대문학』에 단편 『계산』이 김동리에 의해 초회 추천되었고, 1956년 8월 『현대문학』에 단편 『흑흑백백』이 추천 완료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한 이래 단편소설 48편과 『토지』^{1~16권}을 비롯한 장편소설 총 20편, 산문집 10권, 시집 5권²⁾을 발표 하는 등 작품 수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작품 수만큼이나 박경리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아서 한국학술연구정보원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박경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가 2,385건이며 이중 석·박사학위 논문 123편, 학술지 발표 논문 330여 편에 이르는 등 방대한 연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³⁾. 이는 단순히 연구 대상 텍스트 양의 풍부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구자의 흥미를 끄는 분명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였다.

박경리 문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까지 매체변이⁴⁾를 하면서도 지속

1) 지난 2006년에 조사된 『EBS 설문 조사로 본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에 의하면 박경리의 『토지』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박경리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가 3위에 올랐으며 여전히 『토지』를 비롯한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과 1960, 70년대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 박경리의 연보는 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를 참고하였다.(김은경, 『박경리 문학연구』, 소명, 2014)

3) 2017년 6월 조사 기준이며 이후에도 연구물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

4) 박경리 문학의 매체 변이 관련 연구로 영화와 TV 드라마, 만화로 각색된 텍스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있고, 박경리 문학을 문화콘텐츠의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최윤희, 『만화 『토지』의 서사 변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3, 2011, 325-358쪽; 이수현, 『매체 전환에 따른 『토지』의 변용 연구: 영화, TV드라마, 만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강희재, 『소설 『토지』를 활용한 역사 시민강좌 운영 사례』, 『강원문화연구』 29, 2010, 117-126쪽 등이 있다.

적으로 의미 있는 텍스트로 읽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끄는 서사 구조와 전략은 작가마다 다르고, 한 작가가 포착한 삶의 국면은 작가 자신은 물론 작품을 수용하게 될 독자와의 '공감'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독자와의 '공감'은 텍스트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물에 의해 구체화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 때론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되살아난다. 문학에서 인물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행동하는 주체이며 주제를 실현하는 매체이다. 텍스트 안에서 인물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며 인간의 삶을 모방하고 재현한다. 그러므로 문학 텍스트 안에서 인물의 감정과 행동은 작가의 경험과 전기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닌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행동이 함의하고 있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관습에 대한 포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박경리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인물의 유사한 감정과 특질은 텍스트 내적 구성요소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적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이자 사회문화적, 정서적(심리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경리 문학 속 결벽한 여성인물과 유약한 남성인물에게서 드러나는 반복적 특질은 독서의 흥미를 반감하는 부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듯 다르고, 전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 문학텍스트에서 생생하게 독자적인 인물의 특성을 발휘하고 있어 박경리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세계관과 세계관의 변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5) 마사 누스바움은 감정은 “사람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어떤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압도적인 힘으로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경향이 있고, 가치평가를 포함하고”있다고 정의한다.(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1-인정과 욕망』, 새물결, 2015, 62-64쪽.)

특히 박경리 문학 속 결벽한 여성인물은 작가와 작중인물의 거리의 근접성으로 인해 사소설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문학적 한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작가의 경험을 통해 1950년대 전쟁체험과 휴전 후 젊은 여성가장이 겪은 현실성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생활공간이 변한 상황에서 갈등하며 주체로서 자아를 찾아가는 여성의 공통적인 특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55년 문단활동을 시작한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은 전쟁체험과 전후 살아남은 자들의 생생한 삶의 현상이 담겨있고, 특히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여성인물이 보이는 신경질적인 행동과 특질은 여성적인 속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분열적 모습으로 드러난다.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원형은 작가의 현실인식과 여성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자질과 행동이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이라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당시 여성이 처한 현실과 여성이 무엇에 반응하는가를 규명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성의 모습은 주체로서의 탄생과정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계산』의 회인을 시작으로 『토지』의 최서희에 이르는 신경질적이고 결벽한 자아를 가진 인물은 전후, 1960·70년대 근대 산업화, 경제개발 시기를 거치는 동안 어떤 특질은 유지되고 다른 어떤 특질은 진화하였다. 박경리가 문학 활동을 시작한 1955년부터 2008년 5월5일 타계하기까지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격동의 변하기였다. 개인의 타고난 품성, 당위와 명분을 좇을 수 없는 환경은 끊임 없이 현실과 길항하며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개인의 내면, 감정, 행동,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이 보이는 행동⁶⁾은 개인의 내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기질적인 것과 환경적 요인으로 촉발된 것이 역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 드러난 여성인물이 처한 환경은 전후 극한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극한 현실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인물이 보이는 반응은 작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성인물의 특질 형성의 토대가 되고 있는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환경은 쿠르트 레빈의 '장 이론(field theory)'을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다. 여성인물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질은 인물이 처한 환경과 연동하며 표출되고 있다. 여성인물이 처한 환경과 내적 갈등, 감정의 변화 등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여성의 각성과 주체화를 이끈다.

본 연구는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 드러난 여성인물이 처한 환경의 변화, 가치관, 기질, 생활태도, 행동, 주변인과의 관계, 갈등요소, 갈등해소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특질은 이후 중·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유사인물군의 인물창조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어 이 시기 여성인물의 원형을 규명하는 것은 박경리 문학 속 여성 인물의 창조원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6) 쿠르트 레빈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에는 개인의 생활공간에서의 변화가 개인 자신이든 또는 그를 둘러싼 환경이든 간에 개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속성에서 현재 이르는 변화방향과 속도, 현재에 대한 탐색 그리고 내적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쿠르트 레빈, 『사회과학에서 場理論』, 박재호 역, 민음사, 1987, 30-79쪽 참조)

2. 가부장제 연애에 좌절한 ‘신경질적 철벽녀’

박경리는 스스로 『토지』의 작가이길 바랐고,⁷⁾ 『토지』의 작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에 등장하는 600여명의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된 인물이 아니며 그 씨앗은 등단 이후 지속적으로 쓰인 작품 속에 배태되었고 성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치열한 개인의 내면 탐색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경리 소설의 인물 형상화와 관련하여 박혜원⁸⁾은 박경리 소설의 인물 창조의 원리를 ‘운명개척자, 사랑의 구도자, 회의주의자, 反사회적 악인’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작가의 인물 설정은 한 작가의 특징을 본질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김세나⁹⁾는 ‘전쟁체험이 인물들의 외적환경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내면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보고 여성인물의 구현 양상을 ‘반성장 주체적’ 모습으로 분석하였다. 이혜경¹⁰⁾은 박경리의 『표류도』에서 여성 주체들의 사랑과 생명의식의 이중변화 양상을 고찰하는 가운데 여성 주체의 ‘능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리 소설의 인물유형과 초기 단편 소설에 대한 연구¹¹⁾는 박경리 소설연구의 주된 주제이다.

7) ‘나는 지금 습작을 해 온 셈이다. 이것도 습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의 작품 하나를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습작을 할 것이다. 그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는 날 나는 문학과 인연을 끊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으로 끝날지 모르겠다.’에서 박경리는 『토지』 이전의 문학을 습작이라고 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작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박경리, 『마지막 습작을 위해』,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404쪽)

8) 박혜원, 『박경리 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토지』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보』 2, 2007, 320쪽.

9) 김세나,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과 의미구현 양상—「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5호, 2014, 193-214쪽.

10)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구—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70호, 2016, 185-216쪽.

11)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6호, 2012, 481-508쪽; 김예니, 『박경리의 초기

박경리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공통적 특질 중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인물의 기질적 특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탐색하지 않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폐쇄성 자체가 특질이 될 수 없고, 폐쇄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해 작가의 내면과 여성인물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야 특질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고립된 채 폐쇄적 삶을 살아가는 인물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부모세대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적 위계에 따른 피해자로서 체념의 형태로 선택한 고립이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남녀의 이중적인 성규범에 타협하지 않는 저항으로서 자립적 의지의 표현으로서 선택한 고립이다. 특히 전쟁¹²⁾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파괴되고, 허망한 가족의 죽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쟁으로 파괴된 환경은 여성인물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장(場, field)이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공간의 변화는 인물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보이는 세계에 대한 환멸과 폐쇄적 태도는 개인의 기질적인 요소인 동시에 전후 파괴된 환경 속에 남겨진 '전쟁미망인'¹³⁾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편소설의 서사적 거리감에 따른 변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7호, 2014, 217-251쪽;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호, 2011, 151-167쪽; 김수영,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태릉어문연구』 제9호, 2001, 87-107쪽 등이 있다.

12) 전쟁으로 인한 개인이 받게 되는 상처에 관하여 프로이트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전쟁에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환멸을 불러 일으켰다. 대내적으로는 도덕규범의 수호자인 체하는 국가가 대외적으로는 저급한 도덕성을 보여준 것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최고 수준에 이른 인간 문명의 참여자로서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잔인성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실이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김석희 옮김,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47쪽)

첫 번째 부모세대의 남성중심적 결혼제도로 인해 파탄난 가정환경 때문에 연애에 실패하고 폐쇄적 인물형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절대적인 사랑을 추구하지만 진실한 사랑이 좌절되었을 때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떠나 회피적인 삶을 선택한다.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남녀 간의 감정의 교환이 아닌 온전히 자신과 타인이 합일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이들 인물에게 드러나는 공통 특질은 미혼여성으로서 정서적으로는 예민함, 우울함, 냉소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순전한 사랑을 꿈꾸고 조금의 훼손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들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남녀 간의 감정의 교류에 한정된 것이 아닌 존재의 존엄성을 확인 받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유형의 여성인물이 보이는 신경질적인 태도는 남녀 간의 사랑이 연애의 기반이 아닌 남녀의 위계적 결합으로 변질되는 가부장적 관습에 대한 저항이자 거부반응이라 할 수 있다.

『계산』의 회인, 『반딧불』의 주영, 『벽지』의 혜인은 불행했던 어머니의 삶을 통해 남녀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결합하지 않은 부모의 파탄 난 결혼생활은 스스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회인은 “경구가, 연애를 거친 회인과의 약혼을, 어느 좌석에서 후회 비슷하게 말한 사실”(『계산』, 270쪽) 때문에 고향을 떠나 잠적을 하였다. 회인에게 ‘진정한 사랑’은 조금의 타협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다. 일견 이들이 이렇게 결벽한 사랑에 목을 매는 일이 이해하기

13)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전쟁미망인’ 혹은, ‘전재미망인’이라 불렀는데, 미망인은 (남편의) 죽지 아니한 아내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성을 독립적 주체로 호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유족처럼 ‘유부인’ 혹은 ‘고 000의 부인’, ‘홀어미’ 등의 대체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남편 사망 후 홀로 남은 여자에 대한 주체적 호칭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등한 사랑을 전제하지 않은 남녀의 위
대한 결합이 남긴 상처로 인해 평생 고통 받는 자식(자신)을 떠올린다
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회인으로서의 생전 첩보는 사람이니 사고파는 차운 거래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통명스럽게 한 자기의 말이 회인
의 귀에도 언짢게 들려서 또 한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 회인의
차가운 태도와 행동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불신을 전제
로 한다. 남녀 사이에 친절이 친절로 해석되지 않고 ‘부정한 거래’로 왜
곡되는 성 고정관념은 회인으로 하여금 더욱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폐쇄적인 기질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에게 특히 미혼 혹은 젊은 여성에
게 엄격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가) 깔끔한 주영의 성질 때문에 빈번히 성화를 받는 어머니지만 이런 걱정을
영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구지게 거절을 당하며는 슬그머니 풀
이 죽어버리는 어머니였다. (…중략…) 부엌에 나갔다 온 어머니는
「아, 참 내 손갈을 잊었구먼.」
하며 밀어낸 밥상 앞에 앉는다. 그리고는 주영의 손갈을 든다.
「싫어요! 남의 손갈로…」
몹시 불쾌한 표정인데다가 목소리조차 표독스럽다. 어머니의 얼굴이 별
개진다. (『반딧불』, 110쪽)

(나) 주영은 가난하고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
고 해서 누구 앞에서 굶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주영
이 학수 앞에서만은 불우한 자기가 비참하게 돌아다 보이는 것이다. 학수를
위협보다도 둘 사이의 애정의 순수를 위하여 주영은 간절히 대등한 자리에
서고 싶었다. 왜 자기는 비굴해지지 않으면 안되고, 학수의 애정 속에 동정

14) 『계산』,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 19, 1987, 지식산업사, 267쪽. 동일 전집 수록
작품은 제목과 쪽수만 밝히겠다.

적인 우월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럴 적마다 무엇인지 고운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불안과 공허감에 싸이는 것이었다. (『반딧불』, 113쪽)

주영이 보이는 결벽증의 원인도 아버지의 외도에서 기인한 부모의 평탄치 못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아버지와 그러한 사실을 감내하고 사는 어머니에 대한 반감은 연애에 대한 결벽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약점으로 인식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마저 방해하고 있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아래서 남녀에게 성규범은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고통은 여성과 자녀가 평생을 떠안고 가야할 몫이다. 여성에게 불리한 남녀의 연애는 여성인물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철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들의 결벽한 성격은 가부장제 사회에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고, 누구에게도 타자화 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주체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다. 이들이 주체로서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생존마저 위협하는 궁핍한 상황은 여성이 주체로서 자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인물은 남성중심의 질서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며 세상에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타락한 여성인물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관습으로 인한 부모세대의 영향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었던 딸의 저항과 달리, 이중적 성규범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여성인물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 성규범을 적용하는 속악한 현실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자발적으로 사회로부터 분리된 삶을 선택한다.

혜숙은 이렇게 궁해져도 도무지 기질만은 옛날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 아니꼬고 더러우면 껍하니 칫 뵈고 돌아서 버린다. 이러한 성질은 가난한 그를 더욱

가나하게 하였다. 이번에 직장을 그만 둔 원인도 역시 그의 결백성 때문이다. 추근추근하게 구는 뱃대기에 기름이 끼인 상부 사람이 더럽고, 또한 향락의 대상으로 보인 것이 분하고 원통하다는 데서 사표를 내던졌던 것이다. (『흑흑백백』, 『박경리문학전집』 19, 51쪽)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향락’의 대상⁵⁾이 되기를 거부하는 결연함은 단순히 여성인물의 까다로운 기질로만 볼 수 없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후 ‘전쟁미망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이중적이다. 남성이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장’의 대리역할을 수행하는 ‘억척스럽지만 정숙한 가장’으로서 여성, 남편이 없는 홀어미로서 ‘성적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시선¹⁶⁾ 속에 가두었다. 이들 ‘전쟁미망인’이 보이는 신경질적인 반응과 결연한 행동, 결백함은 개인적 기질인 동시에 사회적 시선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쿠르트 레빈은 그의 ‘장(field) 이론’에서 “개인의 행동은 심리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으로써 생활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촉발된다.”¹⁷⁾고

15) 가부장적 남성사회는 개별가부장의 통제에서 벗어난 ‘전쟁미망인’의 성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이들의 성은 사회적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시선은 당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이른바 양공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전쟁미망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강화되었으며, 이들의 성은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는 위협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전쟁미망인’ 문제는 1950년대 내내 사회적 이슈로 신문 지상에서 기사화 되었고 신문연재소설과 전후 여성 영화의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이명순, 『1950년대 한국 여성담론 연구-젠더화된 근대인식과 여성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6-47쪽)

16) 한국전쟁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소 30만 명을 넘는 미망인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미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민간 구호 단체에 의해 지원 혜택을 받았던 경우는 2%에 불과했다고 한다.(이임하,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과 평화』 제3호, 2003, 94쪽)

17) 쿠르트 레빈, 『사회과학에서 場理論』, 박재호 역, 민음사, 1987, 30-79쪽 참조.

한다. 이들 여성인물이 보이는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행동은 개인적인 성향, 전후 피폐한 환경과 그로인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부장제 질서에 의해 촉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신경질적 철벽녀’ 인물 원형이 이후 박경리 문학 속에서 입체적 인물로 성장·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신경질적이고 폐쇄적인 특질이 개인적인 자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심리·물리적 생활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헌신적 모성이 아닌 각성한 ‘의지적 모가장(母家長)’

이 유형의 인물이 처한 환경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채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사회로의 이행기로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한 때이다.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사랑은 사라지고 목숨마저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속물적 생활환경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전쟁미망인’의 이야기¹⁸⁾는 작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의 피폐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에서 전쟁의 상흔은 남성부재 상황에서 여성 가장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고 생계를 담당하며 겪게 되는 극한 상황으로 드러난다. 이때 젊은 ‘전쟁미망인’의 모습은 비단 작가의 분신이 아닌 시대적 일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

18) “전쟁미망인만 나올 것 같으면 작품이 여하하게 윤색되었건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편견이 딱하더구먼요. 실전을 경험하고 전쟁이야기만 늘 쓰는 남성작가에게는 왜 사소설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않는가, 여자가 겪는 전쟁은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상황적으로도 다를 테지만”이라는 작가의 항변이 아니어도 작가의 개인사와 작품 내적 구성요소로서 인물의 특질은 구별하여 논의해야 한다.(박경리, 『사소설의 의의』,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 16, 지식산업사, 1981, 119쪽)

가족의 수가 1천만 명에 달하고, '전쟁미망인'의 수 50만, 전쟁고아의 수가 10만에 이른다는 통계자료¹⁹⁾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친정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의 모습은 전후 문학에 등장하는 여느 여성인물의 자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들이 처한 생활환경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역할과 개인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 의지 사이에서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양자택일의 상황이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전쟁미망인은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모성에 집착하는 대신 환경변화의 이유와 가장으로서 자아를 탐색한다. 박경리 소설 속 '전쟁미망인'은 『프랑스文學의 展望』이라는 일본책이 책장에 꽂혀 있고, 문학을 공부하고, '쥐꼬리만큼의 월급'(『흑흑백백』, 50쪽)이지만 직업이 있는 여자였다. 이들에게 전쟁으로 쏙대밭이 된 집과 남편의 죽음, 남겨진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천재지변 상황이자 가혹한 운명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가) 진영은 아들 문수(文秀)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쏙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잡초 속에 박힌 기와장 밑에서 습기가 차서 너털너털해진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文學의 展望』이라는 일본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 — 순간 진영의 머릿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처럼 지났다.(『불신시대』, 7-8쪽)

(나) 순영이는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열 살 난 계집애, 여덟 살 된 사내아이, 이 두 남매와 늙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 극히 불우한 처지의 여자이기도 했다. 순영이는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일체의 가산도 날려버렸던 것이다. 전쟁 속에서 방황하던 목숨이 전진을 털고 삶의 자리에 마주 섰을 때 순영이 앞에는 꺾박한 생활이 들

19) 이혜원·조현연,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345쪽 참조.

이닥쳐 있었다. 가난, 굶주림, 그리고 자기를 잃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러한 극단과 극단의 사이에서 순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항거정신을 보았다. 그러나 인간 본연의 낭만을 버리지 못하는 곳에서 순영이는 문학에 자신을 의지한 것이다. 『암흑시대』, 233-234쪽)

(다)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불신시대』, 131쪽)

이들 여성인물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도 물리적 상황의 변화와 그로인한 심리적 환경의 변화를 나누어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분열된 모습이 드러나고 주변인과 갈등하지만, 맹목적인 희생과 모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고 있다. 이들 여성가장은 ‘자기’라는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구역이 나올 정도’로 싫었지만 ‘자기’를 벗어던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뚜렷한 자의식이야말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주체의 징표이자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주체로서 각성이 가능한 근거이다. 전쟁으로 변한 물리적 생활환경이 인물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피폐한 생활, 속물적인 주변사람들, 자아의 내적 갈등, 어처구니없는 아들의 죽음 등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각성이 이루어지고 결국 저항의 의지를 갖춘 ‘모가장(母家長)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속물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진 세상에서 도구로 전락한 인간과 생명을 흥정하는 현실은 타협할 수 없는 대상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 모가장(母家長)은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더 이상 뒷걸음 칠 수 없다는 자각은 오히려 항거할 생명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지.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다.(『불신시대』, 140쪽) 생명에 대한 자각은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의지로 이어지고, 현실을 직시하여 내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지고 있다. 생명에 대한 자각과 능동적인 현실인식은 ‘의지적인 여성인물’의 고유한 특질이자 이후 박경리 문학의 여성인물중심 서사 원리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벽지』의 헤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모가장(母家長)은 아니지만 생명의 자각을 통해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는 모습은 이 유형의 인물들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헤인은 아버지가 불륜으로 밖에서 나온 지식이라는 점,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사실 때문에 수동적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헤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복 언니에게 양보하고 수도자처럼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돌아 온 언니의 전 애인이자 지금까지 자기 사랑했던 남자의 고백에 더 이상 누군가의 대용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파리행을 선택한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놓여지는 것이다. 이곳의 하늘과 햇빛까지도 나는 버리고 간다. 그리고 내 몸에 뱀 채취, 그것도 여기에 버리고 갈 것을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파리』는 새로운 벽지(僻地)일 것이다. 그러나 그 새로움에서 나는 내 마음의 벽지를 개간할지도 모르겠다.(『벽지』 전집, 229쪽)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회피적으로 살았던 헤인은 더 이상 회피가 아닌 새로운 개척의 마음으로 ‘개간’을 하겠다고 능동적인 삶을 선택한다. 그곳이 타인의 눈에는 외지고 으스스한 곳으로 보일지라도 자발적인 선택을 통한 개간은 주체적 삶의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헤인의 능동적인 행동은 의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사회의 부조리에 굴

복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의지적 모가장(母家長)’원형의 인물은 전후 문학 속 여성 가장이 보이는 모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와 다르다. 가족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억척어멈의 모습이 아닌 각성을 통해 의지적으로 불의에 맞서고 세상에 대항하는 새로운 주체적 개인이자 여성가장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유형의 인물 원형은 박경리의 문학적 페르소나로서 생명사상이라는 박경리 문학의 세계관을 구현하는 인물이자 매체가 된다.

4.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²⁰⁾를 선택한 ‘주체적 열정녀’

앞서 살펴 본 ‘신경질적 철벽녀’와 ‘의지적 모가장(母家長)’ 원형의 여성인물들은 개인적 감정보다 사회적 규범과 도덕, 가치, 윤리, 명분 등을 근거로 내적 갈등을 겪고, 차츰 주체로서 자각과 각성의 과정을 통해 결국 사회적 부조리와 정면 대결을 선언한다. 이들이 여성에게 덧씌워졌던 성역할에 대한 이중규범과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했던 것과는 달리 ‘주체적 열정녀’ 원형의 인물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다. 이

20) 섹슈얼리티(sexuality)란 ‘신체적 차이, 성욕, 욕구, 출산 능력, 젠더 정체성들과 같거나 서로 다른 수많은 신체적 심리적 기능성들이 한데 묶여 고안된 역사적 구성물’이다.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 행동은 물론 인간이 성에 대해 갖는 환상, 꿈,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이해심 및 개인의 존재 의미 등을 지칭한다. 여기에 포함된 개인의 사고, 감정, 가치관, 신념, 취향 등이 사회·문화적 영향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섹슈얼리티 또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신체적 쾌락과 욕망을 살아내는 문화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0, 110-111쪽) 여기서 쓰일 섹슈얼리티는 프로이드식의 심리학적 개념이다.)

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여성 인물 유형과 달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능동적이고, 감정에 솔직하며 남녀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원형의 인물이 세계와 대결에서 패배하는 것은 작가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이들 여성 주체의 섹슈얼리티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만큼 사회의식이 성숙되었는가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결혼이후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아내, 어머니로서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것이 아닌, 여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전제로 아내, 어머니의 역할이 추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결혼은 무성의 존재로 탈바꿈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서로가 사랑했다.

숙혜는 이 절대적인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와 대치(代置)시켜 볼 어떤 것도 알지 못했다. 숙혜는 현재의 생활을 혐오하고 청산에 골몰했다. 서로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연애였는데도 불구하고 숙혜의 대담한 이혼 요청으로 말미암아 구구한 낭설이 거리거리에 유포되었다.

숙혜는 순명의 단호한 태도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나이는 그러지 못했다. 숙혜의 어머니가 깊은 심화(心火) 속에서 죽어버리자 숙혜의 모습도 H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전도』, 290쪽.)

『전도』의 숙혜는 Y은행 본점 조사과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는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숙혜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딸의 음악 선생을 사랑하게 되어 남편에게 이혼까지 종용하고 사랑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랑도 가정도 잃었던 과거 때문이다. 숙혜에게 이혼보다 사랑의 실패가 더 큰 상처가 되었지만 주변사람들은 그녀의 실연을 소문거리로 삼을 뿐이다. 숙혜에게 주변사람들은 숙혜의 연애가 아닌 불륜이라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남녀의 관계에 집중

할 뿐이다. 주변인이 말하는 ‘비정상적이고 반사회적’인 남녀 관계란 결혼제도를 기반으로 한 남녀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혼을 감수하고서 선택한 연애했지만 결국 부정한 여자의 비정상적인 애정행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숙혜는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고립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정도 새 삶의 기회도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다. 숙혜의 죽음은 기혼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징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숙혜의 자살에 가까운 죽음으로 드러난 남성에게는 관대하지만 여성에게는 가혹한 가부장제 사회의 공고한 성윤리의 이중규범은 작가의 동의가 아닌 과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할 문제인가를 반문하게 하는 저항의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

『어느 정오의 결정』의 민영은 사사건건 괴롭히는 계모와 충돌적으로 관계를 맺은 상준을 피해 부산 사촌 오빠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다. 사촌오빠의 집은 전쟁 중 정부요인이 드나드는 관저로 고관인 B씨도 그 중 한명이었다. B씨의 비서인 이경서를 한눈에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경서는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경서는 민영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민영이 아닌 가족을 선택하며 결별을 선언한다. 민영은 경서를 이해하면서도 경서에 대한 마음을 단념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한다.²¹⁾

(햇빛을 못보면 어쩌냐. 첩이라도 좋다. 그이의 사랑만 있다면……)

민영은 자리에 주저앉아 후들후들 떨었다.(『어느 정오의 결정』, 198쪽.)

둘의 관계는 끝나고, 돌아서는 이경서를 향한 민영의 감정은 불륜이라는 사회적 지탄보다 강렬하다. 이경서만 동의해 준다면 첩이라도 되

21) 민영, 이경서와 유사한 상황에서 애정의 갈등을 보이는 작품으로 『푸른 운하』가 있다. 『푸른 운하』의 송은경과 이치운의 인물의 성격과 상황, 갈등 관계 등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박경리, 『푸른 운하』, 마로니에북스, 2014)

고 싶은 심정이지만 경서는 아내와 자식을 버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민영을 거절한다. 그의 이별통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만나 '경서에게 부딪쳐 보리라' 결심하고 쪽지를 보낸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우연히 딸아이를 안고 아내와 길을 건너오는 경서의 모습을 본 민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한다. 결말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위배되는 사랑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선에 도 불구하고 자기감정에 적극적인 인물의 등장에 있다.

『훈향』²²⁾의 숙영은 전쟁 중에 오빠와 애인 서병민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케와 조카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다. 조카가 발작을 일으키자 서클활동의 도움을 받았던 윤종필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청구하고, 경제적 지원에 대한 마음의 부채를 덜기 위해 숙영은 윤교수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오빠와 애인 서병민이 돌아오게 되면서 숙영은 결혼에 대한 책임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결국 오빠의 도움으로 윤교수와 이혼하고 서병민과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감정에 좀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숙영의 모습은 자기감정보다 사회적 시선에 민감했던 인물들과 구별된다.

이들 여성인물이 여전히 사회적인 압력에 희생되고 때로는 패배하고 있지만, 주체로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고 여성으로서 섹슈얼리티를 자각하고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물의 진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이후 박경리 문학의 '열정녀'의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며 사회적 통념과 맞서거나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인물유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2) 『훈향』은 이후 『애가』의 기본 모티프가 되어 확대된 서사로 그려지고 있다.

5. 결론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특질을 분석하여 여성인물의 원형을 탐색하는 것은 단순히 인물을 유형화하고 각 인물의 특질을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다. 각 여성인물의 원형은 이후 박경리 문학에서 여성인물의 캐릭터 형성의 원형질로서 기능한다. 각 작품 속 여성인물은 박경리 문학 전체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서사의 핵심요소이다. 여성인물이 겪는 갈등과 성장은 당대의 시대의식은 물론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이중규범의 단면을 보여준다.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도 주체로서 살아남아 자리매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인물은 작가의 페르소나의 분화이자 총합이다. 이들 인물을 통해 작가는 개인에 대한 통찰 그중 여성이 처한 부조리한 현실과 타자화 된 여성이 겪을 수밖에 없는 내면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박경리 초기단편소설 속 여성인물의 원형은 전세기 여성가장의 부박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물의 유형적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현실과 타협하거나 타자화 된 현실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주체로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박경리 문학의 대모신적인 여성인물의 창조로 이어지고 있다.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원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신경질적 철벽녀' 원형의 인물—「계산」의 회인, 「반딧불」의 주영, 「벽지」의 혜인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의지적 모가장(母家長)' 원형 인물은—「흑흑백백」의 혜숙, 「불신시대」의 진영, 「암흑시대」의 순영, 「훈향」의 숙영 등이다. 세 번째 '주체적 열정녀' 원형 인물은—「전도」의 숙혜, 「어느 정오의 결정」의 민영이 이 유형에 속한다.

『도표 없는 길』의 순화는 예외적인 인물로 박경리 소설에서 볼 수 없는 무뎠하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온정주의적 인물로 이후 『토지』의 월선에 가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신경질적 철벽녀’의 공통 특질은 불행한 결혼 생활로 파탄 난 부모의 자녀라는 점, 위계적인 남녀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이지만 실연 상태이고, 타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결벽증이 있고,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갈등을 단절로 해소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신에 대한 피해 의식 혹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들로 이들은 부모세대의 남성중심적인 결혼제도와 남녀에게 이중적인 성규범의 피해자이다. 이들은 가족제도 편입과정으로서 남녀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 절대적인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녀의 불균형적인 애정관계가 가져오는 파국을 원체험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애정 결핍은 사랑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자신의 존엄성과 연결 지어 사고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여성인물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사랑은 결혼으로 수렴되는 가족제도의 일환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엄성으로 이어지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신념을 상징한다. 진정한 사랑의 훼손은 존엄성의 훼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자폐적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의지적 모가장(母家長)’의 공통적 특질은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이자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자립적이다. 이 유형의 인물은 자의식이 강하고 갈등을 저항과 거부로 해소한다. 특히 이들은 급격히 변한 환경에 부적응 상태를 보이며 혼란스러워 한다. 전쟁과 가족 상실, 극심한 경제적 곤란, 사회구조의 변동 등 동시다발적

으로 일어난 생활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채 과거의 습속을 유지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후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과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된다. 삶과 죽음이 거래되는 세상에 대한 분노는 생명의 자각으로 이어지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통해 대모신의 원형으로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세 번째 ‘주체적 열정녀’의 공통적 특질은 감정에 솔직하고, 예민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감성적이며 타협적이다. 이들이 겪는 애정갈등은 상대방의 미온적 태도로 파국에 이르지만 여성인물 자신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질은 다른 여성 원형의 인물과 달리 자기감정에 솔직하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랑에 실패하는데 이들이 패배하는 것은 작가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여성의 주체적 섹슈얼리티를 수용할 만큼 사회의식이 성숙되었는가 여부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박경리 문학의 진화 과정 속에서 이들 여성 인물의 원형은 씨앗이 되어 성숙한 여성이자 주체적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박경리의 초기단편소설이 발표되던 시기의 전후 소설에서 여성인물은 타락한 아프레 길, ‘억척어멈’형 어머니와 성적 욕망에 충실한 팜므파탈 형 여성 등으로 전형화 되어 그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박경리 소설 속 여성인물은 성위계적인 연애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만 결백한 사랑을 추구하는 ‘철벽녀’와 희생적인 모성이 아닌 각성한 의지적인 ‘모가장(母家長)’ 그리고 남성중심적이고 관습적인 섹슈얼리티에 저항하는 주체적인 ‘열정녀’에 이르기까지 전형성을 탈피한 여성인물의 원형을 구

축하고 있다.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 원형은 결벽한 여성, 의지적인 여성, 열정적인 여성, 희생적인 여성 등으로 각각의 특질이 분화·심화되며 새로운 여성인물로 창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서희와 같이, 결벽한 여성의 특질을 가진 여성인물이 스스로 성장하는 가운데 의지적 모가장(母家長)으로 다시 대모신의 여성인물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다. 박경리 소설 속 인물은 공통 특질의 유지, 변화를 겪으며 박경리 소설의 주체이자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매체로 진화하고 있다. 초기 단편소설 이후 중·장편소설을 거쳐 『토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텍스트 안에서 인물 사이의 상관성을 밝히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는다.

「부록」 작품 분석표

번호	작품명	여성인물	상황	가치관	기질	생활태도	행동	주변인과 관계	갈등요소	갈등해소 방법
1	계산	회인 (미혼)	약혼자에 실망하여 고향을 떠남. 고립적 삶을 살고 있음	진정한 사랑 추구- 이상주의	결벽증 배타적 섬세함	완벽 추구/ 직업 있음	저항적 자신의 신념을 지킴	대립적 화해를 주선하려 온 정아 가치관이 다름	진정한 사랑의 훼손	결별
회인에게 사랑은 자신의 존엄함의 확인으로 타협할 수 없음										
2	흑흑백백	혜숙 (전쟁 미망인)	홀어머니, 딸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지만 실직 상태	경제적 자립 자의식 강함	결벽 배타적 예민함	완벽 추구/ 실직	저항적, 자립적	방어적- 친구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음	오해로 인해 취업 기회 상실, 경제곤란	관계 단절
혜숙의 타인에게 조금도 신세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결벽한 성격은 생존을 위협함										
3	군식구	해당 사항 없음								
국제결혼 한 딸에게 얽혀사는 양서방이 주변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야기										
4	전도	숙혜 (기혼)	Y은행 본점 조사과 근무하다가 과거 행적 때문에 퇴사 후 공녀가 됨	사회 통념에 어긋난 사랑 추구- 딸의 음악 선생과 사랑에 빠짐	결벽, 예민함	완벽 추구/ 직업 있음	의지적 - 이혼 요구 체념작 동료 빈정거림에 퇴사	회피적- 동료들의 조롱을 피해 퇴사, 주인 사내에게 살해당함	과거 유부남과 염문, 경제곤란	살해됨
숙혜의 통념에 어긋난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 소문으로 인한 빈정거림을 견디지 못함										
5	불신시대	진영 (전쟁 미망인)	전쟁 중 남편 잃음, 전후 아들 잃음, 폐결핵, 실직상태	윤리, 도덕 추구 이상주의	자의식 강함 부정적	타협/ 실직	의지적, 저항적 아들 문수의 위패를 태움	대립적- 무책입한 의사, 세속적 종교인, 이중적 지인과 갈등	윤리, 도덕이 무너진, 세속적이고 부조리한 현실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 생명 의식 각성
진영이 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죽음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생명의 자각에 있음										
6	영주와 고양이	민혜 (전쟁 미망인)	전쟁 중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 딸아이와 살고 있음	공평을 벗어나고 싶어 함- 현실주의	결벽	소극적/ 구멍가게	체념작 공평을 벗어날 수 없음	친구 정희와 우호적	절대적 공평에 시달림	갈등의 지속
천진난만한 딸아이를 통해 대물림되는 가난과 운명에 절망함										
7	반딧불	주영 (Y대학 생)	홀어머니와 근근이 살아가고 있음, 폐병, 집안	버림받은 어머니로 인해 애정의 순수 추구- 이상주의	냉소적 결벽 예민함	피해 의식 부정적/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	어머니는 애처롭지만 부담스러움,	열악한 자신의 처로 인한	결별

			차이가 나는 연인 때문에 고민 중			학생	로 인한 상처가 커서 아버지 외면	아버지는 외면, 여인 학수에 의지함	애정 갈등	
주영이 학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비굴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별을 결심함										
8	僻地	혜인 (미혼)	혜인은 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존재로 어머니는 자살하고 전쟁 중에 아버지도 죽고 이복 언니는 월북하고 홀로 남음	생모의 자살, 이복언니의 월북, 언니의 남자에 대한 연모-운명주의	회피적 우울	순응 불안/양장점 운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음. 순응적 태도	언니의 연인이었던 강병구를 연모하고 있음. 감정을 숨김	감정과 윤리 사이에서 애정 갈등	이별, 도피(파리로 떠남)
혜인은 출생관련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음. 언니의 남자에 대한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음										
9	道標 없는길	순화 (기혼)	열일곱에 부엌데기로 들어와 주인집 남자의 아이를 낳고 병든 남자를 돌보고 살다 떠나게 됨	인정 주의	정이 많음 무뎠함	타협적/술집	순응적, 체념적	늙고 병든 남편을 10 여 년 동안 술장사를 해서 먹여 살림	극한 궁핍	떠났다가 돌아옴- 남편 자살
순화가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떠안고 살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얻어먹고 살라고 떠남										
10	암흑시대	순영 (전쟁 미망인)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홀어머니와 어린 남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아들마저 사고로 죽게 됨	낭만 주의	낭만적 자의식 강함	타협적/가계운영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받아들 이려고 노력함	어머니와 친척빨 할아버지와 기질이 맞지 않지만 타협적으로 지냄	부조리한 현실	아들 사망
순영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최소한의 낭만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들마저 사고로 잃고 망연자실함										
11	혼향	문숙영	전쟁 통해 애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남자와 결혼을 함	이상주의자이지만 현실중시	적극적	능동적 책임감 강함	남겨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함	생사를 알 수 없는 오빠를 대신해서 울게와 조키를 돌보고, 남편에게 의리를 지킴	윤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	오빠의 도움으로 남편과 이혼 후 사랑하는 남자와 재결함

숙영은 여성가장으로서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오빠의 도움으로 이혼 후 사랑하는 남자와 재결합함										
12	어느 정오의 결정	민영 (미혼)	계모와 쫓아다니는 남자 상준을 피해 부산 사촌 오빠 집에 머물며 집안일을 돌봐주고 있음		감성적 충동적	적극적, 솔직함/ 사촌 오빠 집일 돌봄	타협적, 자기 중심적	자신의 욕망에 충실함	피난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유부남을 향한 사랑	결별/사랑 없는 결혼 승낙
유부남인 경서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구애하지만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려는 남자와 이별 후 마음 없는 남자에게 충동적으로 결혼 승낙										
공통점		실연한 미혼/ 전쟁 미망인	가족에 대한 책임감 결속력 강함/ 가족의 영향력 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양가적	자의식 강함/ 자립심 강함/ 주체적	책임감 강함/ 경제 활동	능동적/ 적극적/ 실행력 높음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갈등상황 빈번/ 결벽한 성격 원인	자의식과 현실사이에 서 갈등/비판 의식 강함	결별/고립/ 죽음/비타협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경리,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 19, 지식산업사, 1987.
_____, 「마지막 습작을 위해」,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404쪽.
_____, 「사소설의 이의」, 『Q씨에게 박경리문학전집』 16, 지식산업사, 1981, 119쪽.

2. 논문과 단행본

- 강희재, 「소설 『토지』를 활용한 역사 시민강좌 운영 사례」, 『강원문화연구』 29, 2010, 117-126쪽.
김세나,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과 의미구현 양상—「시장과 전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55호, 2014, 193-214쪽.
김수영,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인물유형 연구」, 『태릉어문연구』 제9호, 2001, 87-107쪽.
김예니, 「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의 서사적 거리감에 따른 변화 양상」, 『돈암어문학』 제27호, 2014, 217-251쪽.
마사 누스바움, 「감정의 격동1-인정과 욕망」, 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5, 545-556쪽.
박혜원, 「박경리 소설의 인물창조원리와 『토지』로의 확대양상 연구」, 『구보학보』 2, 2007, 319-336쪽.
서재원,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가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0호, 2011, 151-167쪽.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애가」와 「표류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6호, 2012, 481-508쪽.
이명순, 「1950년대 한국 여성담론 연구—젠더화된 근대인식과 여성성의 재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수현, 「매체 전환에 따른 『토지』의 변용 연구: 영화, TV드라마, 만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임하, 「전쟁이 끝나도 여성에게 평화란 없다: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여성과 평화』 제3호, 2003, 88-112쪽.
이혜경, 「주체의 욕망과 생명의식의 변화 양상 연구—박경리의 『표류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70호, 2016, 185-216쪽.
이혜원·조현연, 「한국전쟁의 국내외적 영향」,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0.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또하나의문화, 2000.

지그문트 프로이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김석희 옮김,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최유희, 『만화 『토지』의 서사 변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3, 2011, 325-358쪽.

쿠르트 레빈, 『사회과학에서 場理論』, 박재호 역, 민음사, 1987.

Abstract

A Study on the Prototype of Female Characters in Park Kyung-Ri's Literature
—Focusing on Early Short Stories

Jang, Mi-Young(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emale prototype in Park Kyung-Ri's literature, analyze the character and qualities of the female characters revealed in each prototype, and to clarify the social implications. The prototype of femal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early short story novel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 first, unmarried women with a self-denied identity; second, a moth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family's livelihood; and third, a passionate woman who focuses on sexuality as a woman. However, the qualities and behavior of these female characters are individual traits and cannot exclude the societal interactions and influences that women must experience i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spaces of the post-war society.

The conflict and growth experienced by these women's figures not only demonstrates the sense of the times, but also the reality that women face from a gender-world-based perspective and the aspects of double standards that are discriminatory against men and women. A woman who struggles to survive as a subject and establish her place in a sexist society is a differentiation and a general consensus of the author's persona. Through these characters, the author provides a usefu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irrational reality that women face among others, and the internal conflict that girls in the printed world must experience.

The prototype of the female characters in the early short story novel Park Kyung-Ri not only reveals the change of the living space and the process of subjectifying women but also evolves by sharing the character and qualities of female characters as protoplasm through the entire Park Kyung-Ri literature.

The prototype of the female character in the early short stories of Park Kyung-Ri is not only an early product of the period, but also a clear representation of the female identity process, and the evolutionary nature of the female character and

evolution through literature. The originals of the female figures interact with the times and are revised and strengthened throughout the author's literature to reach *The Land of Mrs. Yoon*, Choi Seo-hee, Seok-hyeong, Bong-shung, and Wol-seon.

(Keywords: empathy, field theory, life space, female characters, impregnable woman, breadwinning mothers, passionate woman)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6일

수정완료일 : 2018년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13일